



걸그룹 소녀시대(왼쪽부터 써니·티파니·효연·윤아·서현·유리·태연·수영)가 5년 만에 정규 7집을 발매했다. 멤버들 모두 “앨범에 ‘우리 영원 하자’라는 의미를 담았다”며 입을 모았다. 주현희 기자 leth1147@donga.com

5년만에 완전체…“소녀시대 복습하는 느낌”

지난 5일 정규7집 ‘포에버원’ 스웨덴 등 31개국 아이튠즈 1위 “한자리 지키고 있는 팬들 위해 ‘소녀시대’ 영원히 지켜나갈 것”

‘소녀’에서 ‘여왕’이 됐다. 2007년 “지금은 소녀시대!”라고 외치던 당찬 소녀들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도 소녀시대”라며 국내 최장수 걸 그룹이라는 타이틀로 팬들 앞에 섰다. 2세대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가 5년 만에 완전체로 모여 8일 정규 7집 ‘포에버원’(FOREVER 1)을 발표하며 “걸그룹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그 첫걸음으로 데뷔 일인 5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먼저 전 세계에 공개한 음원은 31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흥행 파워를 과시했다.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음원은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이집트, 인도네시아, 홍콩,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정상에 올랐다. 또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QQ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차트와 일본 레코초쿠 데일리 앨범 랭킹에서도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케이팝 대표 걸그룹답게 오랜만의 완전체 컴백이라는 점에서 반응이 뜨겁다. 소녀시대는 데뷔 후 ‘지’(GEE), ‘소원을 말해봐’, ‘오!’, ‘런 데빌 런’(Run Devil Run), ‘훗’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독보적인 인기를 끌었다. 미국 빌보드는 2017년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소녀시대에 대해 “지난 10년간 최고의 케이팝 걸 그룹”에 선정했다.

이후 2020년 멤버 수영, 티파니, 서현 등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다섯 멤버만 재계약한 후 각자 솔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만

큼 이번 완전체 활동은 ‘소원’(팬텀)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요계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어느 나라에 도착하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시절이었어요. 마치 학창 시절 수학여행을 갔던 생각처럼 새록새록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이번 앨범은 데뷔 후 소녀시대와 멤버들의 활동을 총 집약했다. 2017년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발매했던 정규 6집 ‘홀리데이 나이트’(Holiday Night) 이후 5년 만이다.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소녀시대 활동을 복습하고 기념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한번 소녀시대가 무엇을 해왔는지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죠. 소중한 사람들에게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사도 그렇고, 지금의 소녀시대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 영원 하자’라는 의미도 담겼어요.”

수록곡 중 ‘럭키 라이크 댓’은 소녀시대 데뷔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곁을 지켜준 팬들을 위해 만든 곡이다. 오랫동안 ‘소원’하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윤아는 멤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녹음을 하며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오랜만에 멤버들의 전체 녹음한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했다.

소녀시대는 그룹 컴백과 동시에 현재 솔로 활동도 병행 중이다. 이번 컴백으로 국내 최장수 걸그룹이라는 타이틀까지 공고히했다. 그 비결에 대해 이들은 “멤버들이 모두 소녀시대의 팬”이라면서 “요즘 들어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더 대단하고 느껴진다. 어떤 장애와 역경이 있어도 소녀시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멤버 전원의 의견을 모으는게 쉽지 않지만,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정현 기자 annjoy@donga.com

예능에 뜬 뉴페이스 배우들 “보기 드문 조합” “신선하다”

‘파친코’ 노상현, ‘도포자락’ 서 새 매력 ‘배우는 캠핑장’ 박성웅·신승환 등도 눈길

예능에 ‘뉴 페이스’들이 뜨고 있다. 노상현, 진선규, 신승환 등 드라마와 영화로만 대중을 만나 왔던 배우들이 연이어 예능프로그램에 도전해 시청자들로부터 신선하다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노상현

MBC ‘도포자락 휘날리며’에 나선 노상현은 3월 공개돼 국제적인 극찬을 이끈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에서 신실한 목사를 역으로 주목을 받았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가수 김중국, 지현우 등과 함께 덴마크에서 한국 관련 기념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신인이지만, ‘파친코’로 그를 접한 MZ세대 시청자들의 시선을 이끌면서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덕분에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4회 만에 4%대(닐슨코리아)에 진입하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채널A·ENA ‘배우는 캠핑장’의 박성웅·신승환, tvN ‘텐트 밖은 유럽’의 진선규·박지환 등도 작품을 통해 보여줬던 약역 이미지와 사뭇 다른 꾸준한 매력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이들 모두 예능프로그램 첫 고정출연으로 일찌감치 시청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아냈다. 각 프로그램의 실시간 댓글창에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보기 드문 조합에 흥미가 쏠린다”는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다.

이는 연애 등으로 편향된 소재 및 일부 예능인들의 겹치기 출연 등으로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도포자락 휘날리며’의 황지영 PD는 7일 “신선함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소재 변화를 넘어 인물 변화도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하더라도 개성을 갖춘 연예인을 과감하게 기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맹수 같은 눈빛” “소름 돋는 미소”…변요한 vs 임시완 ‘빌런 전쟁’

변, ‘한산’ 왜군 장수 집착 분노 호평
임, ‘비상선언’ 서 압도적 광기 열연

영화 ‘한산: 용의 출현’(한산, 감독 김한민)과 ‘비상선언’(감독 한재림)이 토요일인 6일 극장을 찾은 102만 명의 관객 중 79만 명을 모으며 쌍끌이 흥행 중인 가운데, 각 영화의 악역 변요한과 임시완에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6월 1000만 관객을 모은 ‘범죄도시2’에서 극악한 살인마 역으로 주목 받은 손석구가 불러온 ‘빌런 열풍’을 이어갈 기대다.

‘한산’ 변요한은 이순신 장군과 대립하는 왜군 수군의 최고사령관 와키자카를 연



변요한

임시완

기했다. 100% 일본 고어(古語)로 대사를 소화했으며 위협적인 장수의 모습 위해 체중을 15kg이나 증량해 눈길을 끌었다. 와키자카를 단순한 악당이 아닌, 승리에 대한 광적인 집착, 분노, 이순신을 향한 두려

움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경정구도에 대한 몰입감을 높였다는 평이다.

변요한과의 첫 만남에서 와키자카 역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김한민 감독은 “저돌적이면서 이순신과 다른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 모습을 변요한에게서 봤다”면서 “현장에서는 타고난 판단력은 물론 성실함과 집중력이 돋보였다”고 전했다. 이순신을 연기한 박해일은 변요한이 가지고 있는 “죽일 듯 맹수 같은 눈빛”에 대해 칭찬했다.

임시완은 ‘비상선언’에서 생화학 바이러스를 비행중인 비행기 안에 살포하는 싸이코패스 테러범을 연기했다. 선한 얼굴에서

뿔어져 나오는 광기어린 눈빛과 비릿한 미소가 압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론가들 역시 전도연, 이병헌 등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연기력을 보여줬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변호인’에 이어 두 번째로 호호한 송강호 역시 임시완을 “우리 영화의 히든카드”라고 칭하며 “‘범죄도시2’에 손석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임시완이 있다. 너무 대견하다”고 칭찬했다. 연출자 한재림 감독은 “아무도 범죄자로 보지 않을 사람에게 싸이코패스 역할을 맡기고 싶었다. 과장하거나 힘주지 않고 일상 속에 녹아든 악을 그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진·지민·뷔·정국&베니 블랑코&스눅독’ 협업
‘배드 디시전스’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7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지민·뷔·정국이 미국 음악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베니 블랑코·래퍼 스눅독과 협업한 ‘배드 디시전스’(Bad Decisions)가 글로벌 음악 차트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7일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노래는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7위를 차지했다. 공개 첫날인 5일 스트리밍 건수 415만7천585회를 기록했으며 6일엔 74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다. 베니 블랑코의 새 앨범 선공개곡인 ‘배드 디시전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솔직한 마음을 담은 신나는 댄스곡이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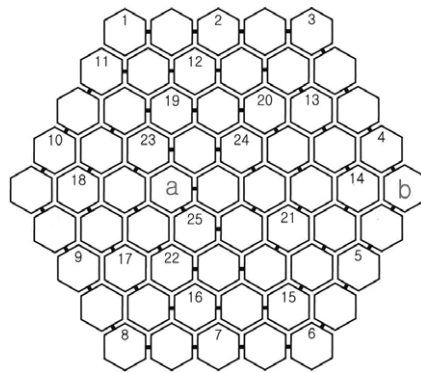
		3	9		4			
		8		2		1		
	1		6				2	5
3				4		2		1
	8		1		7		6	
1		7		6				4
5	3				2		9	
		4		8		3		
			3		1	5		

3		5				9		2
			7	2	4			
2				3				1
	3			4			5	
	4	6	3		7	1	2	
	5			6			9	
6				7				9
			6	8	3			
4	7				5		6	

■ 스도쿠정답

4	7	9	1	6	8	5	2	3
8	9	6	2	5	1	3	7	4
9	6	9	2	7	1	8	5	3
7	9	8	5	9	2	6	1	4
8	9	6	7	5	1	2	8	3
1	2	6	7	8	5	9	3	4
9	2	7	8	6	9	6	1	4
6	8	1	9	2	7	8	5	3
9	8	2	7	1	6	8	5	3
7	4	2	8	9	1	6	9	5
6	1	8	5	7	9	2	3	4
8	6	7	2	9	1	8	5	3
8	2	1	2	9	6	9	7	6
4	9	9	8	7	6	2	8	1
1	8	2	6	8	9	7	9	2
9	9	8	7	2	1	6	1	8
2	7	6	9	1	8	5	2	3

■ 낱말문제



01.절벽에서 곧장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02.바둑에서, 고립된 돌끼리 싸움을 벌이게 된 상황. 03.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04.하는 일 없이 놀고먹음. “○위○식” 05.음식을 먹은 뒤에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증상. 06.자연수를 분류하여 불순물을

제거할 물. 07.국가, 민족, 개인 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신. 08.새로 입학한 학생. 09.아들을 낳게 하여 달라고 삼신에게 드리는 기도. 10.지저분하고 더러운 도량. 11.주로 문을 바르는 데 쓰는 얇은 종이. 12.물고기가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13.그렇듯하게 훌륭한 이름을 내 세운 아래. 14.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 15.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 16.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 17.날마다 또는 늘 있는 일. 18.중국 명나라 때의 4편의 걸작 소설. 19.붓글씨로 일가를 이룬 사람. 20.한 집 한 집마다. 21.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함. 22.문장을 지을 때, 담력은 크게 가지되 주의는 세심해야 함을 이르는 말. 23.운두가 조

금 높고 굽이 없는 접시 모양으로 생긴 넓은 집그릇. 24.바둑에서, 살 가망이 없는 돌은 버리고 선수를 잡으라는 말. 25.차분하지 못하고 매우 거칠게 털링거리는 사내아이.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a.b 칸을 이어놓으면 식물의 이름이 됩니다.

